

농촌 현장의 소리 (10월)

※ 문의: 미래정책연구실 조사동행팀 송성환, 김미리(061-820-2325, 2159)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 개요

- 수집기간: 2017. 10. 11. ~ 10. 31.(총 23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에 대한 현장여론

- 쌀값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면 어찌나하던 걱정들로 불안했는데 오히려 쌀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다수 농민들은 안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벼 수매량이 많아져 가격이 오른 것이지 시장의 수요가 늘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기에 마냥 좋아해선 안 될 일임. 우리의 논은 그동안 벼 재배를 위한 경지로 만들어왔으며, 다른 작물은 기계화가 부진하여 농사짓기가 힘든 문제가 있지만 **벼 이외의 작물재배를 최대한 유도하고, 벼농사 못지않은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쌀의 공급량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임.**
<김○○, 경북>
- 계속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 생각됨. 쌀을 타 작목으로 전환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을 것임. **각 지자체별로 쌀의 대체 작목을 결정해 품목별 면적, 생산예상량을 파악해 소비 계획까지 관리하는 쌀 대체품목 확산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정○○, 경남>
- 올해도 쌀 수확량이 395만 톤 이상이 생산되어 쌀값대란이 예상됨.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현상은 정부와 농민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함. 농민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체작물도 없을뿐더러 쌀농사가 비교적 농사짓기 편하고, 가격이야 어찌되건 농사만

지어 놓으면 정부에서 일부 구매해주니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또한 해마다 줄어드는 소비량이 큰 원인이기도 함. **적정면적을 넘는 경지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대체 작물을 경작할 경우 현실에 맞는 지원책으로 대체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최○○, 충남>

- 쌀에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비용을 투자해 이웃보다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서로가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쌀의 경쟁상대는 소비자의 눈에 드는 상품 개발과 수입산 쌀과 밀가루를 이길 수 있는 수출시장 개척이 되어야 함. **남아도는 쌀을 가공하여 밀가루를 대체하도록 지원하고, 쌀 가공품의 해외 시장개척을 정부에서 앞장서 이끌어 주기 바람.**<변○○, 강원>
- 해마다 남아도는 쌀 문제로 농민과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소비량이 줄었던 수입량이 늘었던 남아도는 쌀을 언제까지 창고에 쌓아 놓을 수 없는 노릇인데, 이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임.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다른 작목을 심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함. 방법은 수입쌀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국산 쌀의 공급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음. 식량난에 대비해서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농민은 농사 외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은 농민이 알아서 높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당장 농지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임.** 비상시에 농지로 회복 가능한 형태의 규제완화로 농지를 줄이거나 임야에 주로 설치하는 휴양시설이나 골프장 등의 시설을 농지에 허가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함.<이○○, 충북>
- 현대인들은 변화한 식생활에 따라 쌀밥을 많이 먹지 않는 실정인데, 쌀의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아 소비량과의 차이로 매년 재고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쌀 보관료로 1년에 500억 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절대농지를 해지하고 쌀 생산면적을 과감히 줄여 재고 쌀을 줄이지 않고선 악순환이 계속 될 우려가 있음.<나○○, 전남>
- 탄수화물이 많으며 쌀을 건강과 다이어트의 적으로 삼아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쌀은 전분이 적어서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적고 소화가 잘되는 아주 좋은 곡식이며 수많은 좋은 점을 홍보해야 함. 필리핀의 경우, 땅이 넓고 삼모작까지 가능한 곳이지만 1970년대부터 주변의 나라에서 쌀을 수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쌀농사를 등한시하게 되었고 현재에 와서는 쌀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임.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까 우려됨. **쌀 가공, 종자개발, 쌀 효능 홍보 등으로 쌀 소비촉진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정○○, 경남>

- 1년을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있는 쌀을 보면서 많이 낙심했음. 정부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수매 시스템을 개선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바람.<이○○, 전남>
- 쌀이 남는다고 쌀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임. 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를 지키는 것처럼 당연히 지켜야할 정부의 일임. 따라서 **정부는 계획 생산을 강력히 추진 하여 쌀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며, 농지는 보전하되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한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함.** 이렇게 보전되는 만큼 소비자가격이 낮아져야 지금의 수입쌀과 경쟁을 할 수가 있을 것임.<김○○, 전북>
- 지난 2016년의 적정생산량은 390만 톤인데 반해 과잉생산분은 30만 톤이었고, 쌀의 의무수입량이 40만 9천 톤이었으며, 매년 이자처럼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음. FTA 등은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무너트리는 한편, 곡물 수출국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제곡물가격이 2~3년 주기로 급등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음. 농업은 공익적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할 것임. 정책변화의 모델로 제주감귤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음. 2000~2001년 감귤재배 면적이 25,207ha에 78만 8천 톤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던 때가 있었는데, 온 도민이 1/2 간벌, 감귤원 휴식년제 도입, 부적지 폐원, 타 과수로의 전환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품질의 과실 생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부터는 예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고 지금은 45만 톤 내외 생산으로 비교적 가격안정을 이루었음. 예전에는 면적과 수량이 자랑거리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냈는가를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음. 이와 같이 수매만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변화해야 할 것임.<고○○, 제주>
- 쌀 가격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고 농자재 비용, 인건비 등 모든 경영비도 오르기만 하는 실정임. 쌀 생산은 거의 100% 기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농기계 가격은 매년 몇 백만 원씩 올라 웬만한 농기계는 거의 역대를 넘는 실정임. 게다가 보증 수리기간은

고작 1~2년이며, 이마저도 오일 교환 정도가 전부임. 농사짓기가 세월이 갈수록 나아져야하는데 거꾸로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음. 주변을 보면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쌀농사를 짓는다는 한탄이 많음. 정부에서는 농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개선점을 찾아주기 바람.<오○○, 전북>

- 쌀의 소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마트에 가면 온갖 밀 제품은 많은데 쌀 제품은 많지 않음. 쌀국수, 쌀라면, 쌀가루를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봄. 떡 뿐만 아니라 라면과 같이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쌀 가공품 개발을 통해 밀 가공식품을 대체해 쌀 소비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임.**<송○○, 강원>
- 누런 들판을 보면서 모두들 풍성한 가을이 멋지다며 좋아들 하지만 해마다 농민들 마음은 편하지가 않음. 쌀값이 조금만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듯 난리이고,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우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밀가루는 소비량이 점점 늘어 가는데 쌀로 밀가루의 대체품으로 손색이 없게 점성을 유지하는 연구를 해서 밀가루 시장의 반만 쌀로 대체해도 쌀 소비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됨.<박○○, 강원>
- 본인은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니 쌀 조청이 필요한데, 요즘은 마트에 수입제품만 준비해 있는 실정임. 수입쌀 조청만 국산 쌀로 바꿔도 쌀 소비는 늘어날 것임. 국내산 쌀 가공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이○○, 전남>
- 추수가 되면 쌀 문제로 여론이 분분하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마는 실정이라 매우 안타까움.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지만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은 계속해서 정부 수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함.**<김○○, 경기>
-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쌀의 물량을 줄이고 신도불이라 하는 우리의 것이 주가 되도록 정부에서 끌어주어야 할 것임. 농협창고에 쌀을 대량 저장해놓고, 수입을 계속 하다간 재고 쌀을 어찌 감당할지 의문임. 우리의 주식량이 되고, 한 해 피땀 흘린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모두가 웃는 날이 오길 희망함.<조○○, 충남>